다중채무자 줄었지만 빚 갚기 어려워졌다

대출 증가율 절반 감소…2금융권 몰려 신용회복률 낮아

금리 인상 가속·부동산 경기 위축되면 부실 증대 가능성

광주시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근심이 더 깊어졌다. 몇 년 전 사업확장을 위해 저축은행서 돈을 빌려 채무를 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이 어렵게 됐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에 진 채무도 근근히 갚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채무 변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금 다는 아니더라도 이자라도 갚아야할 텐데 막막하기만 하다.

A씨처럼 금융기관 여러 곳에 채무를 두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줄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금리인상까지 현실화 되면서 서민들의 금융부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사 대출채권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들어 3분기까지 금융권의 다중채무자 대출액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6.0%였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말한다.

연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대출증가율은 8.0%다. 지난해 증가율(11.9%)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11.7%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9.0%)와 은행(6.3%), 카드사(4.5%), 조합(4.5%), 캐피탈(1.9%) 순이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이 많은 보험과 저축은행에 대출이 몰려있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6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196조1000억원이다. 연체율은 0.41%로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0.4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연체율은 3~8%대,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다중채무자는 비다중채무자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채무불이행자)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업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에 비해 낮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가속화로 신용대출의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경기 위축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1.00 (-10.49)
- 금리 (국고채 3년) 2.08% (-0.01)
- 코스닥 760.40 (-3.69)
- 환율 (USD) 1092.40원 (+0.10)

통상임금 해소·임금피크제 시행·복리후생 조정

금호타이어, 노조에 자구안 제안

금호타이어(대표 김종호)에 대한 채권단 실사보고서가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호타이어 사측이 통상임금 해소와 임금피크제 시행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노동조합측에 제안했다.

금호타이어는 12일 열린 '제36차 본교섭'에서 구성원들의 고용보장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노조측에 제시하고, 자구안 이행을 약속하는 노사 동의서를 노측에 요청했다.

금호타이어가 마련한 자구안은 구성원들의 고용보장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타이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12.2%)을 기초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2922억)을 산정하고 회사의 현실과 경쟁력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목표금액 1483억(영업이익률 5.5%)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됐다.

이는 P-플랜을 포함한 구조조정 절차가 확정되기 전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선합의해서 채권단에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매각과 관련 이해관계자인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자구안의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 무급 휴무, 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 중단, 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014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만 3년이 안됐지만 회사는 적자 구조가 심화, 누적되어 워크아웃 당시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어진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며, 전 구성원의 동참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과 채권단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P-플랜을 비롯한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은 절대 피할 수 없다"며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가 협력해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야 하고 금호타이어 회생의 첫 단추가 자구안에 대한 노사 동의서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동조합과 사원들에게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16일 제외) 4일간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보해양조-광주시 청년부채 해결 앞장

상담·구제방안 지원 드림은행 개소

윤장현 광주시장(오른쪽)과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가 12일 동구 광산동에서 가진 '청년드림은행 개소식' 후 청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시와 손잡고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12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청년드림은행 개소식에 참가해 광주·전남지역청년들의 부채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개소식에 함께 참여한 윤장현 시장은 청년 부채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드림은행 공간을 지원해준 임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청년드림은행은 보해양조와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협업해서 설립됐다. 청년드림은행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구제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해양조 이민규 마케팅본부장은 "보해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영세사업장 신규 근로자 국민연금 최대 90% 지원

내년부터 시행…저임금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이 확대된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만원대로 즐기는 호텔 점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이달까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모래시계 레스토랑이 메인 요리와 세미 뷔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윈터 헬씨 런치 스페셜'을 선보인다.

궁중 떡갈비와 제철 식자재를 이용한 우거지 갈비탕 등 보양식 반상세트와 홀리데인 광주의 시그니처 메뉴인 양갈비를 1만7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월~목요일에만 진행되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박기웅기자 pboxer@

자동차산업 부진의 늪

생산·내수·수출 감소…해외 공장 판매량도 17% 줄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11월 생산과 내수, 수출이 동반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실적(수량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8.0%), 내수(-1.2%), 수출(-8.0%)이 모두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동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일부 업체 근무시간 단축, 중소형 차량 판매 부진 등으로 생산이 줄었다"며 "수출도 유럽과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11월 생산은 38만2034대를 기록했고, 내수에서는 16만6339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내수 판매에서 전년보다 2.6% 줄어든 13만9592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차는 내수에서 전년 대비 8.4% 증가한 2만3747대의 실적을 올렸다.

내수 전기차 판매는 2038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다.

11월 수출은 23만7083대를 기록, 작년 동월 25만7563대보다 감소했다.

다만,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40억7000만달러를 기록, 작년보다 3.4% 늘었다.

해외 공장 판매물량도 38만5547대로 작년보다 16.8%나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부품 수출도 19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0.8% 줄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생산 감소로 북미, 중국 부품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